

새로운 세계 위스키 시장 트렌드



정성운의

K-위스키 발전을 위한 제안

최근 몇 년간 세계 위스키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위스키 강국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일본 외에도 대만을 포함한 ‘뉴월드 위스키’ 생산국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뉴월드 위스키는 독자적인 접근 방식과 높은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위스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심에는 ‘카발란(Kavalan)’이라는 브랜드가 있다. 2008년 첫 제품을 출시한 이후, 카발란은 전 세계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제 대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대만의 위스키는 대만의 독특한 기후와 자연환경 그리고 전통적인 증류 기법과 현

대적인 기술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는 짧은 숙성 기간에도 불구하고 깊은 풍미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대만 위스키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대만뿐만 아니라 호주도 뉴월드 위스키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다. 호주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과 기후를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의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호주산 위스키는 풍부한 맛과 향이 특징이다. 타스마니아(Tasmania) 지역은 호주 위스키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위스키는 그 품질과 독창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 역시 뉴월드 위스키의 중요한 생산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스키 소비국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위스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도 위스키는 독특한 향신료와 과일 향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인도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전통적인 증류 방법에서 기인한다. 이미 몇몇 제품들이 국제 무대에

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인도 위스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뉴월드 위스키의 부상은 세계 위스키 시장에서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위스키 강국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뉴월드 위스키 생산국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위스키 문화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위스키 원액을 직접 생산하는 국가 반열에 합류하여 세계 위스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세심한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한국 특유의 장인정신과 이를 통해 성취한 높은 문화적 수준을 위스키에도 접목한다면 앞으로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위스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강국들만의 무대가 아니라 뉴월드 위스키와 함께 다채로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가는 중이다.

／美 헤리엇앤드사우 애즈 증류학 석사, 현 골든블루 마케팅팀

한국, 노벨 문학상 넘어 과학상을 향해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소설가 한강이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은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고,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등장한 일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24년 만의 쾌거다.

노벨상은 인류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는 최고의 영예로 매년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6개 분야에서 수여된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포함해 또 다른 문화적 성취를 알렸다. 최근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글로벌 곳곳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문화

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벨 생리학상에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생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찾은 이 새로운 종류의 작은 RNA 분자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치병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벨 물리학과 화학상도 화제다. 인공지능(AI)을 응용해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들이 상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존 홀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인간 뇌의 뉴런을 모방한 인공 신경망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발전시켰다. 노벨 화학상도 수상자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비약적인 연구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응용 학문이 기초 과학을 대신해 노벨상을 차지하는 것

이 맞는지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인공지능은 수단에 불과하며 수상자들의 기초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업적이 없었다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이어진다.

이처럼 노벨 과학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최신 지견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의 과학 기술도 세계 중심에서는 날을 그러 본다. 미래 한국 과학은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소통을 주도하기를 희망한다.

매년 노벨상 소식을 접할 때면 각계 각층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올해는 한국 문학 예술이 가치를 드러낸 만큼 다양한 도전이 계속되길 바란다. 물론 예술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욕망은 커지고 사회는 복잡해져겠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함을 모두가 알 것이다.

/mlee236@

오늘의 운세 10월 22일 (음 9월 20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손톱에 못단배 가듯이 하루가 손조롭다. 48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60년생 노력을 해도 어찌 못하는 일이다. 72년생 지나친 고집을 피우면 외면하게 된다. 84년생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소 37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49년생 만일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모아야 한다. 61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자꾸 더 커진다. 73년생 직장에서 바라던 소식이 오니 기쁜 하루. 85년생 지루한 하루가 될 듯.

로 38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현명. 50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62년생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됨. 74년생 특별한 아이디어로 어려운 일을 해낸다. 86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 걸 실감.

토끼 39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이 서글프다. 51년생 꾸리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꾸준히 노력. 63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실득시킬 수 있다. 75년생 내 그릇 안에서 움직이자. 87년생 금전 요구는 가족을 지치게 한다.

곰 40년생 태양이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52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 64년생 화룡점정(畫龍點睛)은 노력에 의한 것이다. 76년생 끝까지 참는 것이 오늘의 행운을 차지. 88년생 꿈같은 일이 현실에서 발생.

뱀 41년생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자. 53년생 새로운 만남으로 얻은 정보가 이익을 가져온다. 65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77년생 가족에게서 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숨겨야 할 때. 89년생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다.

말 42년생 공장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니 이 또한 좋다. 54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자. 66년생 부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78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90년생 걷다가 돌맹이에 발이 걸린다.

양 4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울 날. 55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미뤄둔 일을 해결. 67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만 언다. 79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91년생 상식이 있는 사람과 견주자.

원숭이 44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험퉁 노를 저어야 할 때. 56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68년생 좀 참으면 내일이 편하다. 80년생 남을 탓할 핑계거리를 찾지 않으면 좋게 게다가 달라진다. 92년생 믿을 사람을 믿어라.

닭 45년생 혼자 웃어야 하니 서글픈 하루. 5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81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에서 스스로 변화가 온다. 93년생 복권의 행운을 얻으려면 먼저 복권을 사야만.

개 46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58년생 계약 성사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70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초화가 깨진다. 82년생 운기의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을 기다리려 보도록. 94년생 모처럼 지인을 만나 회포를.

돼지 47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59년생 배우자의 위로가 필요한 날. 71년생 재물 운이 상승하여 추진해 오던 일이 마무리된다. 83년생 승산이 있으니 승부수를. 95년생 인생에서는 나 자신의 문제와 각자 조상의 문제이다.

김상희의四季

인생을 바꾸는 기도



충정로 월광사에서 기도에 정진했던 중견 기업 국장은 기도하기로 정한 날을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성실하게 직장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린 건 마음 수양과 자기 변화를 위해서였다. 과감 사주인 그는 장단점이 뚜렷한 성향이였다. 인내심이 강하고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집요함이 강점이다. 성과를 위해서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라도 유대관계를 만들었다. 문제는 단점이었다. 과감 사주는 강단 있고 추진력이 좋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다. 아랫사람에게는 자기만큼 일을 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압박하고 성과가 나쁘면 고풍하게 만든다.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친한 후배 직원이 터놓고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분이 대단한 것은 자기의 단점을 알고 난 뒤에 스스로 고치려고 나섰다는 점이다. 자기를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고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기도였다. 자기의 장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점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단점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주변과의 충돌도 줄어든다. 그러나 타고난 성향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 수양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좋은 마음과 배려심을 가지려고 꾸준히 애써야 한다. 기도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야 할 점을 깨닫게 해준다. 간절함과 정성이 조화를 이룰 때 기도는 큰 효험을 발휘한다. 바쁜 일과 중에도 기도하는 날을 꼭 지키고 그 기도가 좋은 결과를 보였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힘을 보여주는 게 기도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드의 열과를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6	2	7	4	6	1	9	9
7	1	9	8	7	9	2	6	6
6	2	9	5	1	8	8	7	2
6	9	6	9	2	7	1	8	
2	7	6	2	8	1	5	9	6
9	8	1	9	6	7	6	2	2
9	9	7	6	2	8	1	6	8
1	2	8	1	7	8	9	6	9
1	6	8	6	9	9	2	2	7

9	2	9	6	8	2	7	1	6
2	6	1	7	8	9	8	9	9
8	6	1	7	2	6	9	6	2
8	6	1	5	9	6	2	2	2
6	9	8	6	2	7	9	1	1
2	1	6	9	6	8	2	5	7
7	9	2	9	1	2	6	6	8
9	2	9	2	7	1	8	6	6
1	7	2	8	6	6	9	2	9
6	8	6	2	9	9	1	7	2